

겨울, 그리고 가을

「학력사항」

- 고려고등학교 졸업
- 전국학력고사 수석 합격(1983년, 340점 만점에 339점)
-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28회(1986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수석합격
- 제28회(1986년) 사법시험 합격
- 법원행정처 인사 제1담당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구고등법원 고법부장판사
- 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홍승민

I. 고시 이전

1. 고시를 보게 된 동기

“왜 고시를 보았는가? 명예를 위해서인가? 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타심의 발로였는가?”

제3차 면접장에서 공고롭게 시험관이 내게 던진 질문은 혹시나 하며 예감하던 그 질문이었는데 나는 잠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생각 끝에 결국 명예를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법대에 들어간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그것은 검사와 형사를 구별하지 못하던 어린 시절부터 원했으며,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영향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법을 공부하면서 인간을 다루는 학문으로서의 깊이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고시도전의 가치를 찾아 나갔던 것 같다.

그러나 성취를 위한 도전의 노력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것은 고시도전에 나름대로의 동기부여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고, 그것은 합격이라는 과녁을 향한 활시위와 같

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뚜렷하고 절실한 동기를 찾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한때 고시포기에 대한 원인으로 고개를 들기도 했다. 이렇게 집요한 근거의식은 입학 당시에 치러낸 뜨거운 흥여의 후유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다른 재주가 있던 나는 83년 학력고사에서 수석을 하는 행운을 얻었다.

수석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은혜에 자그마한 보답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회에 팽배해있던 권력지향적·개인주의적 학과선택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의 표적이 되게 하였다. 비난의 편지도 많았고 '왜 법대를 가려는가?'라는 질문을 묻고 늘어짐으로써 나를 난처하게 히고자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건 발견할 수 있었다.

2. Freshman 시절

1학년이 되면서 두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첫째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4년간 대학에서 얻을 것을 1년에 압축하여 경험하겠다는 것이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은 졸업예정제로 탈락하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은 아니더라도 학점이 저조하여 무능함이 탄로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업도 대부분 들어가고 시험기간에는 새벽에 도서관에 자리도 잡는 등 설쳤는데도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학점은 우수했고 그 바람에 외부장학금을 타게 된 것은 의외의 소득이었다.

대학생활이 낭만 그 자체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범학생'의 틀에 박힌 삶에서 뛰어나와 인간과 인간사이에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었다.

동창이나 급우들의 슬 좌석이 있으면 그곳에 내가 있었고 미팅도 남달리 많이 한 편이었다. 여학생 친구도 하나쯤 있었으면 했는데 결국 실패하였다. 내 자신이 그리 호감을 주지 못하는 인물이라는데 원인이 있겠지만, 여학생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고, 고시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관계를 제한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학생운동의 쇼크도 없지 않았지만 깊이 뛰어들기엔 나는 너무나 소심했다. 사회의 문제도 결국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고, 나는 나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말을 지었다.

생활이 점차 해이해지던 10월 말, 생활에 변화도 줄겸 집이 멀다는 핑계를 들어 신림동에 서 장차 2년간 계속될 하숙생활을 시작했다. 하숙이긴 고시원이건 처음 세 달은 열심히라더니 실제로 그해 가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살았다. 다만 하숙집은 더운 물이 나오지 않아 일주일정도 머리 안 감는건 예사였는데 이 무렵 아는 여학생에게서 빗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II. 자만심

추상적인 것에 불과했던 고시는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정성대라하면 3학년 때 제1차시험, 4학년 때 제2차시험을 보아야 했지만 웬일인지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했지만 박병무 형, 오관석 형이 3학년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학년 때는 법서를 사지 말라는 선배의 말에도 불구하고 2학기 때 민총을 사서 뒤적거렸지만 도움이 된 것은 없었으므로, 1984년 1월 1일을 기하여 정식으로 고시에 뛰어들기로 했다.

E대 P양과 석연치 않은 관계가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고시를 보느니 마느니 하다가, 2월부터 함께 하숙을 하게된 정태욱 군의 격려로 함께 26회 1차에 응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처음 법서를 대할 때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았지만 새로 나온 전자오락을 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과 흥미를 느꼈고, 운명적인 만남이거나한 것처럼 생소함이 적었다. 5월까지 지는 수험기간을 통하여 가장 열심히 공부한 기간이었다. 관록있는 고시생들 옆에서 도서실의 불이 꺼질 때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나도 이들 중의 하나라는 데 은근한 자부심을 품기도 했다. 그러나 기초지식이 없어 진도는 마음같이 나가지 않아 헌법·형법·민법총칙·물권법은 2회독 기타 책은 1회독을 하였다.

국제사법은 시험직전에 사흘을 하였고, 국사·문화사는 고등학교때 한 것이 남아 있을 것 같아 이틀씩 고등학교 때 보던 참고서를 보았고, 영어는 기출문제만 풀어 보았다.

경제학이 골치였는데 조순 저는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으면서도 시간이 모자라 박홍립 저로 바꾸지 못하고 문제집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제26회 제1차 시험이 있던 5월 20일은 내 생일이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시험장을 향하는데 어쩐지 가고 싶지 않았다. 태욱이 수험표를 놓고와서 택시를 실패동으로 돌릴 때도 조금도 초조하지 않았다.

문제를 좀 쉽게 느꼈는데 6월 말 태욱과 내가 합격한 것을 확인하였다. 수험표를 버렸기 때문에 재발급받으러 총무처에 갔다가 성적이 86.87인 것을 보고 놀랐다. 이때 생긴 고시경시증과 자만심이 제27회 제2차시험 실패의 주범이 되었다.

Ⅲ. 생명의 서

축하를 받을 새도 없이 태욱과 함께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아는분의 별장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밥과 빨래는 옆집 아주머니가 해 주셨는데 한 여름에도 새로 지어 주시던 아주머니의 정성을 잊을 수 없다. 유난히 더웠던 그해 여름, 고시는 더위와의 투쟁이었다. 밤이면 산별레들이 유난히 날아들어 창문을 닫아야 했으므로 낮보다는 더 더운 기현상이 벌어졌고 습진으로 달포를 고생해야 했다. 약조건을 오기로 버티며 민소·형소·행정법·상법을 공부해 나갔는데 특히 절차법이 재미있어서 나중에 고득점을 누리게 되었다.

1. 방황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고시를 향한 집념은 84년 가을, 한층 누그러져서 겨울에는 절망 속을 헤메게 되었다.

그해 가을 학원자율화가 단행되어 도서관 앞의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렸다. 도서관 농성과 회장단 제명이 이어졌고 이에 항의하는 중간고사 거부가 학원의 열기를 점점

으로 끌어올렸다, 학생들은 모두 들뜬 상태였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방학이 되어 학생운동은 잠복기에 들어섰지만 이번엔 총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쫓대없는 성격이라 다른 하숙생들과 밤늦게까지 토의하기 일쑤였고 6개의 월간지를 읽는 데도 매일 시간반씩 쏟았다. 종로에 8만명의 인파가 모였을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

중간고사 거부가 한창 토의되던 10월 중순 경 도서실 다과부에서 K양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한없이 약해졌기 때문일까 눈이 한없이 맑고 귀여웠던 이 1학년생을 곧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11월말 철든 이후 나의 첫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그해 겨울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 지 못하여”로 시작되는 청마의 ‘생명의 서’를 외우곤 했다.

그러나 생각하면 그해 겨울 태만한 생활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문제들은 그때 적당히 나타난 자기합리화의 구실일지도 모른다.

2. 좌절

다시 개학을 하면서 공부한 것을 보니 제27회 제2차시험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았다. 8과목 모두 3회독 정도에 불과했고 그것도 성의있게 공부한 것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시 제1차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은 배수의 진을 치고 남은 기간 기적을 만들어 보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제27회 제2차시험은 7월초 단국대에서 실시되었다. 아는 것 없는 답안지를 매꾸려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시험이 끝나니 이제 두 달은 쉴 수 있다는 생각때문인지 마음은 훌기분했다.

영원히 안 왔으면 하는 발표일은 어김없이 찾아 왔고 결과는 낙방이었다.

헌법 과락에 평균 49.××였다. 불합격하던 날, 이태원에서 술마시고 친구의 하숙집에서 쓰러지듯이 잠들었다. 그날 밤 나는 합격하는 꿈을 꾸었다.

IV. 재기의 세월

불합격은 아들의 합격을 확신하고 계시던 부모님과 친지들에게 충격을 전했다. 무질서하고 나태했던 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었고, 고모의 말씀처럼 전화위복이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만 친구들을 대하기가 쑥스러웠고, 한번 떨어지면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터라 불안했다.

불합격을 확인한 순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만 했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방학동안 놀던 버릇이 남아서인지 그게 그리 쉽지 않았다. 하숙생들과 어울려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10월 말 피난을 가는 마음으로 하숙집을 옮겼지만 별반 나아질 것은 없었다. 왜냐하면 언제나 노는 일의 주동자는 나였기 때문이다. 2학기동안 읽은 것은 민소법·형소법·어음수표법 세 권 뿐이었다.

12월 중순께 문제점많은 하숙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20일이

던가 신림동을 떠나던 그날은 눈이 내렸다. 책상과 이불을 신고 봉천동 고개를 올라가며 눈에 잡기어 가는 학교와 하숙촌을 바라보니 웬일인지 눈물이 났다.

1. 재 기

집에 돌아온 다음날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동생과 돈암동에 있는 새오피드서실에 다니게 되었다. 가정집을 개조한 것이어서 집처럼 편안했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대입에 거의 광적이다시피한 고3생들과 함께 생활하니 언제나 자극을 받게 되었고, 고3때 나름대로 성신했던 나의 옛모습을 기억해 낼 수 있었다. 고등학교때 공부하듯 하면 붙고도 남는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주위의 격려와 자극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나태와 자만의 반성으로 고시를 향한 열망과 의욕은 새롭게 피어 올랐다.

9시에 독서실에 도착하여 12시 40분 귀가하는 기계적인 생활이 반복되었다. 7월까지 학교에 가는 것 이외에 빠진 날은 사나흘 정도였고 크리스마스이브에도 그곳에 있었다. 휴식 시간은 독서실 규칙대로 2시간마다 10분씩이었고, 휴식기간동안 흡연으로 두뇌의 능력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금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이 기간동안 같이 공부하며 격려와 충고를 서로 나누었던 급우 이찬진 군(제28회 합격)이었다. 공부한 것에 대해 토론하며, 서로 예상문제를 내서 '모의고사'도 보았다. 혼자였다면 가지 못했을 길을 서로 의지하며 달려갔던 것이다.

개학이 되어 중고생들은 학교에 가고 큰 독서실에는 둘이서 공부하게 되었다. 수업을 듣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오가는 시간도 아까웠고 리듬을 깰 것 같아 거의 학교에 가지 않았다.

휴일도 없이 계속된 긴장속에서도 다행히 건강상태는 양호하여 공부에 대한 권태와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끔 만화책을 보았다. 이현세의 '제왕 17, 18권'인가가 7월 초에 나와서 나를 괴롭혔던 기억이 난다.

2. 제1차시험 준비

제1차시험은 성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불기만 하면 족한 것이지만 제2차시험에 떨어지면 다음해 1차시험에 떨어진 경우가 허다하고 점수가 커트라인을 약간 상회하면 제1차시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제2차시험까지 한달 기간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제1차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

1, 2차 동차공략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두달 정도를 제1차시험에 전력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기간을 늘려잡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이 안전할 듯 했지만 기억의 단절을 막기 위해 후자를 택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3월에는 제2차시험 준비를 하면서 틈틈이 부담이 되는 국사·문화사·경제학을 공부하고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는 문제집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국제사범은 시험

전에 사흘정도 공부하면 족할 것이라 생각하고 영어는 공부해도 늘 것 같지 않아서 시간이 되는 대로 Vocabulary 22,000을 보기로 했다.

제1차시험은 아무래도 문제집실력인 것 같아 과목당 대체로 두 권씩 풀었다. 그리고 문제집마다 잘 몰랐거나 다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을 해 놓아서 시험 직전에는 색칠된 것만 보니 공부한 부분에서 틀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제2차시험 준비

2차 준비는 3월까지 1회독, 6월에 1회독할 생각이었다. 3개월이면 2회독도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이해를 목표로 한 장 한 장을 숙지해 나갔다. 한번의 응시경험이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갖추게 한 것이다.

(1) 제27회 사법시험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교과서를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답안지에 옮기기 어려우므로 의의·연혁은 각 3줄정도로 교과서 여백에 적어놓고 학설대립이 있는 경우에 나의 입장을 확정하고 그 근거를 요약하여 두었다. 참고서에서 본 것도 옮겨 적었다.

(2) 참고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적어도 한 문제는 구석진 곳에서 나오므로 기본서 한 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논문도 보고 싶었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따로 정리하여야 하므로 고시잡지의 예상문제를 읽기로 했다.

(3) 모의고사를 자주 보기로 했다. 전형적인 문제라도 아는 지식을 모두 쓰는데 시간과 답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서 답안의 균형이 깨지거나, 주술관계가 맞지 않거나, 글씨가 너무 많이 틀리는 잘못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문제집은 보지 않기로 했다. 제27회 사법시험때는 상법·민법·헌법은 문제집을 열심히 보았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문제집으로 최종정리를 할까도 했었는데, 신선한 답안을 작성할 수 없다는 점은 차지고라도 연상매체가 없기 때문이지 목차정도만 간신히 기억나고 내용은 제대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법은 포괄적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집을 볼 필요성을 느꼈지만 설마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내랴 싶어서 상법예해를 대충 목차만 보아두기로 했다.

(5) 민소법·형소법·상법을 득점과목으로 정했다. 민소법·형소법은 양이 적고 재미있게 공부해서 득점과목으로 꼽았고 상법은 과락도 많지만 잘 정리된 책이 나와서 고득점도 가능할 것 같았다.

4. 제28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법 지식이 하나하나 쌓여간다고 느끼던 5월 말 여의도 중학교에서 제1차시험을 치르었고 사흘 뒤 고시계에 실린 문제를 보고 합격을 확신할 수 있어서 곧 제2차시험에 몰입하게 되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평균 88.75로 1차 수석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6월 한달은 이제껏 정리해 놓은 기본서 한 권만을 읽었다. 다만 행정법은 단권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행정소송법은 이상규 저로 바꾸었다가 문장이 만연체라 정리가 안되어 애 먹었다.

제1차시험 준비에 따른 공백이 부담으로 남아서 식당에서도 버스 속에서도 책을 읽었다. 열성 끝에 정독을 하면서도 한달 동안 전과목을 1회독할 수 있었다. 마지막 12일은 민법 4일, 상법 2일, 기타 과목 1일씩 공부했다.

제28회 제2차시험은 7월 8일부터 동국대에서 있었다. 첫날은 후문으로 들어가서 20분을 헤매다 간신히 시험장을 찾았는데 이번엔 교실에 내 좌석이 없는 게 아닌가. 새파랗게 질려서 헤매다보니 그곳은 군법무관 시험실이었다.

첫날 윤리는 그런대로 치르었으나 헌법과 행정법에서 당하고 말았다. 절망 속에서 붙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버티었다. 마지막날 형법에서 큰 실수를 세군데서 범하면서 의무의 충돌을 그려 놓았다. 시험을 끝내고 생각해보니 작년보다는 잘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법과락을 걱정하며 두달 간의 대기상태로 들어갔다.

V. 결 실

제27회 때는 제28회를 기억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불합격하면 거듭된 좌절에서 오는 충격과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발표는 9월 11일이었다. 합격여부를 미리 알려주기로 했던 고모부로부터는 제27회 때처럼 아무 연락이 없었고 초조감은 극에 달했다. 고시계에 전화를 걸어 보니 오후 5시에 알 수 있다기에 2학기 수강신청변경을 하러 학교에 갔다. 후생관으로 접어드는 법대 진입로에서 급우를 만났다. 평범한 나의 인사말에 친구는 놀랍게도 '축하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언젠가부터 합격하는 순간에는 마음껏 울어보리라 생각했었는데 갑작스러웠기 때문일까 실제로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다만 다시 한 고비를 넘겼고 이제는 지겨운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만이 조용히 밀려올 뿐이었다.

길에 서서 잠시 관악의 정상을 바라다 보았다. 가을 하늘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합격했음을 알려드렸을 때 아무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시는 아버님의 모습에서 비로소 합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성적을 알아보니 평균 58.41점(석차 16등)이었다. 국민윤리와 민소법·형소법이 65점을 넘었고 기본 3법은 극히 저조했다. 내게는 정말 과분한 성적이었다. 제1차시험의 부담이 없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제1차시험의 부담이 있었기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제2차시험에서 여유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으므로 오히려 내게는 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Ⅵ. 글을 맺으며

1984년 1월에 시작해서 1986년 10월에 최종합격을 확인하였으니 다른 수험생과 비교해서 결코 긴 편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대학생활 전체를 고스란히 고시에 바친 셈이다. 졸업을 한달 앞둔 지금 고시 때문에 포기하였던 많은 것들이 아쉬워진다.

그러나 3년에 가까운 고시생활이 합격증명서 한 장과 등가교환될 것은 아닌 것 같다. 도서관 창밖으로 보이던 어둠에 덮인 거리, 저 멀리 반짝이던 네온싸인과 그 너머의 무엇인가를 바라보던 상념의 순간들, 바람처럼 지나갔던 많은 밤들도 그 나름의 또 하나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제 합격은 되었으나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찬찬히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러나 무엇이 되건 또 어디에 있건 언제나 진정한 법의 편에 서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